

# 도시재생디자인을 통해서 본 에코페미니즘

-난지도의 환경생태공원으로의 재생을 중심으로-

Eco-feminism by Recycling design of city

-Focus on regeneration of Nanjido as a ecological park-

정수연

동양대학교 겸임교수

Jeong, Sue Youn

Dongyang university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배경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에코 페미니즘의 이해

- 2.1. 에코페미니즘의 개요
- 2.2. 에코페미니즘과 심층 생태학

## 3. 환경생태공원으로의 재생

- 3.1. 서울 디자인자산 51선-도시재생디자인
- 3.2. 환경생태공원으로의 재생과정
  - 3.2.1. 월드컵공원의 옛 모습
  - 3.2.2. 난지도 안정화 사업
  - 3.2.3. 월드컵공원으로의 재탄생

## 4. 월드컵공원의 에코페미니즘 경향

- 4.1. 가이아 원리로서의 자연과 여성
  - 4.1.1. 자연의 시작
  - 4.1.2. 생태계의 회복
  - 4.1.3. 숲과 나무
- 4.2.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균형과 조화
  - 4.2.1. 상호 공존 및 공생
  - 4.2.2. 환경교육 및 휴식
- 4.3. 에코토피아를 향하여
  - 4.3.1. 억새축제의 향연
  - 4.3.2. 이상향으로서의 광장
  - 4.3.3. 월드컵공원의 에코토피아

## 5.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생태위기와 여성 억압을 동일한 문제로 인식하는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학(feminism)이 결합한 학문이다. 여성과 자연을 남성과 개발로부터 핍박받은 대상으로 보고 여성적 관점에서의 재평가로서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며 주체와 객체가 아닌 평등의 개념을 전개한다.

꽃과 풀이 아름다운 섬에서 15년간 쓰레기 산으로 자연파괴와 오염의 상징이었던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의 재탄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에코페미니즘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월드컵공원 재생사례를 중심으로 자연의 여성성과 조화로운 세계를 위한 회복, 가이아 원리로서의 치유의 개념,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인 균형과 조화, 에코토피아를 향한 힘찬 발걸음 등 월드컵공원의 에코페미니즘 경향을 분석한다.

우리 앞에 닥친 생태학적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과 자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연과 인간이 상호 공존 및 공생하는 생태학적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 주제어

에코페미니즘, 도시재생디자인, 월드컵 생태공원

### Abstract

The eco-feminism is a study based on ecology & feminism which concern to ecological crisis and feminine suppression. It has a particular point of view which female and nature as a victim by male and development, then tried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female as a impartial being.

'Nanjido' was a huge, nasty dumping ground of seoul, now it changed totally different, there is clean, pleasant 'world cup' park, it symbolizes a turning point of revolution of metropolitan regeneration designs.

'World cup' park shows compromise between human being & nature, cure in harmony for nature and femininity through eco-feminism.

To break through the ecological nature crisis which confront human being, we need to get better thought and different point of view to see the nature correctly. Then we have to find out best solution which human and nature can live together and perfect ecological balance

through eco-feminism.

### Keyword

Eco-feminism, Recycling design, World cup park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배경

급속한 기술의 진보로 인한 환경파괴는 생태학적 환경위기를 맞고 인류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고 국제사회를 지배하던 남성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는 자연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가 에코페미니즘으로 여성과 자연을 남성과 개발로부터 핍박받아온 대상으로 보며 여성해방의 의미를 넘어 자연과, 사람의 삶을 살리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도시화 산업화와 더불어 서울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난지도는 개발과 풍요의 부산물로 채워지게 되며 자연착취의 온상이 되었다. 2002월드컵을 앞두고 조속한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했던 서울시는 월드컵과 새천년을 기념해 도시재생디자인에 의한 난지도의 환경생태공원으로의 변신을 꾀한다.

본 연구는 꽃과 풀이 아름다운 섬에서 15년간 쓰레기 산으로 자연파괴와 오염의 상징이었던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가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모색하며 환경생태공원으로 재생된 에코토피아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월드컵공원의 에코페미니즘 경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생태학적 환경위기로 바로 우리 인간의 위기이다. 환경 문제로 인한 생명파괴는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의 결여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생태학적 각성이 요구된다.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도시재생 디자인을 통해서 본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연구로 난지도의 환경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으로의 재탄생과정에서 보여 지는 에코페미니즘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에코페미니즘의 선행연구로 에코페미니즘의 이해 등 개요와 에코페미니즘과 심층 생태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서울디자인자산’은 서울의 우수한 문화·역사·도시환경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가치로 계승할만한 것들을 디자인 관점에서 재발견, 재해석한 것으로 도

시재생디자인으로서의 월드컵공원을 설명한다.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던 난지도의 환경생태공원으로의 재생과정을 월드컵공원의 옛 모습과 난지도 안정화 사업, 환경생태공원으로의 재탄생의 과정으로 조사한다.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과 월드컵공원 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에코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여성성과 조화로운 세계를 위한 회복, 가이아 원리로서의 치유의 개념,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인 균형과 조화, 에코토피아를 향한 힘찬 발걸음 등 월드컵공원에서 보여지는 에코페미니즘 경향을 분석한다.

## 2. 에코 페미니즘의 이해

### 2.1. 에코 페미니즘의 개요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학(feminism)이 결합한 학문으로 심층생태학과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포함하여 급진적 여성해방론이 아우러지며 자연과 사람의 삶을 살리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페미니즘이 가부장적인 제도아래에서 억압된 여성의 실상을 묘사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면,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이 남성과 권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에 그 초점을 맞춘다.

에코페미니즘은 세계의 분리-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물질과 영혼, 정신과 육체-로 인한 기존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부조리한 세계질서와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조정하는 여신의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여성과 자연이 생명의 잉태와 양육을 책임지는 일에 남성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sup>1)</sup>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되며, 남성과 과학을 자연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묘사한다.

페미니즘의 목표와 생태학 운동의 목표가 동일하다는 견해가 생태적 페미니즘 즉 에코페미니즘 부상의 기본 토대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아즈 도본이 ‘페미니즘이나 죽음이나(1974)’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여성들이 생태학적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여성의 잠재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sup>2)</sup> 생태학과 페미니즘의 조우와 연대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

1) 장정렬(2001). 생태페미니즘 시의 현재와 미래. 초록생명의 길 2. 시와 사람. p.164

2) Francoise d'Eaubonne(1984). Le feminisme ou la mort. Paris : Pierre Horay. p.213-52

결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에코페미니즘은 역사, 사회적이고 복합주의적이며 종합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 거의 모든 페미니즘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며 전통적인 페미니즘이 없었다면 에코페미니즘은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며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이론으로는 심층 생태학이라고 부르는 환경 철학을 꼽는다.

## 2.2. 에코페미니즘과 심층 생태학

에코페미니즘과 심층 생태학은 유사점이나 공통점 뿐 아니라 차이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생태학 운동은 1972년 아르네 네스(Arne Naess)가 “표층 생태 운동과 장기적인 심층 생태 운동”이라는 논문에서 환경운동을 ‘표층 생태학’과 ‘심층 생태학’의 두 갈래로 나눈다.<sup>3)</sup> 표층 생태학과 심층 생태학은 이데올로기에 있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다.

표층 생태학은 인간중심주의적으로 인간을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보며 환경이나 자연은 오직 경제 발전이나 성장의 관점에서만 그 의미를 지닌다.

심층 생태학은 경제 발전이나 성장에 대해 깊은 회의론을 가지며 경제발전이나 성장보다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데 온 힘을 쏟으며 반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내세운다. 심층 생태학에 따르면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척도가 아니며 생물공동체의 그 많은 구성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이 환경과 자연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자연 그 자체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심층생태학은 철학과 환경윤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었고 에코페미니즘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지만 심층생태학에 대한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태도는 서로 엇갈린다. 심층 생태학이 에코페미니스트로부터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것은 인간중심주의가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여성의 억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다.<sup>4)</sup>

여성 억압과 자연 착취를 같은 차원에서 보려는 에코페미니즘은 생태중심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내세우며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균형과 조화에 가장 큰 무게를 실고 있다.

3) Arne, Naess(1973).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Inquiry 16.

4) 김보희(2003). 서구 에코페미니즘과 임윤지당의 철학사상 비교. 한국비교문화학회(31). p.6

## 3. 환경생태공원으로의 재생

### 3.1. 서울 디자인자산 51선-도시재생디자인

서울시는 ‘세계디자인수도 서울2010’을 앞두고 서울의 디자인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을 선정, 발표하였다 (표1).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자산’은 서울이 갖고 있는 우수한 문화·역사·도시환경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가치로 계승할만한 것들을 디자인 관점에서 재발견, 재해석한 것으로 월드컵공원을 생태계의 순환과 자원 재활용의 도시재생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재생디자인으로서의 월드컵공원 - 서울의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던 난지도를 자연생태공원으로 바꾼 월드컵공원은 생태계의 순환과 자원 재활용의 '리사이클링 디자인(Recycling design)'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서울이 도시 정책적으로 '리사이클링 디자인'을 추진하면서 환경보호를 넘어 '자원부국'까지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도시디자인의 혁신과 전환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의 심화연구 결과를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여 출판물, 영상물, 사이버박물관 등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서울2010의 기념행사 중 하나로 <서울 디자인 자산전>을 개최하여 디자인 수도 서울의 유산과 비전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전통건축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 후원, 서울성곽, 승례문, 흥인지문, 북촌한옥마을
근현대건축	한강, 청계천, 선유도공원, 독립문, 탑골공원, 서울역사, 명동성당, 88 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 2002 서울월드컵경기장, 평화의 문과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
거리	광화문과 광장, 인사동, 명동, 이태원, 대학로, 홍대앞
공예·의상	한양 목가구, 관복과 흥배, 활옷, 매듭, 보자기 - 궁보와 민보, 궁중음식
시각·그래픽	수선전도, 동궐도, 정조대왕 원행반차도, 검재의 한양진경, 민화, 훈민정음
서울아이콘·상징	N서울타워, 해치, 소나무, 은행나무, 호랑이
콘텐츠	종묘·제례, 사직단,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수문장교대식, 서울설화, 보신각, 남산봉수대

[표1] ‘서울디자인자산 51선’ 선정

5) 서울디자인자산 51선 선정으로 서울의 디자인 가치 재발견 (2009.7.5)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 보도자료.

## 3.2. 환경생태공원으로의 재생

### 3.2.1. 월드컵공원의 옛모습

난지도는 망원정 부근에서 한강과 갈라진 난지 셋강이 행주산성쪽에서 다시 합쳐진 지역의 아름다운 섬이었다 (그림1). 난초와 지초가 자라고 철따라 온갖 꽃이 만발해 있던 아름다운 섬이었던 난지도는 물이 맑고 깨끗하여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 동식물 또한 풍부해 겨울이면 고니 떼와 흰뺨검둥오리 등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다.



[그림 1] 난지도의 옛 모습 정선(1676~1759)의 금성평사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인<택리지>6)에 따르면 사람이 사는 터로 가장 이상적인 풍수조건은 강을 타고 굽이굽이 바닷물이 거슬러오는 길목에 굽고 단단한 모래로 다져진 땅이며 그런 땅에서 솟아난 담수가 사람에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풍수 조건을 갖춘 땅이 난지도였던 것이다.7)

1978년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 난지도는 땅콩과 수수를 재배하던 밭이 있던 평지로 낮은 땅이었기 때문에 홍수 때면 집이 물에 잠기는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소풍장소나 청춘남녀의 데이트 코스로 사랑 받았으며 애정영화의 세트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던 아름다운 섬이었다.

1978년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1985년 12월에 평면 매립을 완료하였고 그 후 9,200만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100여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산 2개로 변했다. 급격하게 휘몰아치던 도시화 산업화와 더불어 서울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그만큼 늘어난 쓰레기를 수용했던 난지도는 개발과 풍요의 부산물로 채워지게 되었다.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방법은 비위생 단순 매립으로, 사실 쓰레기를 매립했다기보다 각종 오염물질을 그대로 없어놓은 것에 불과했다.8)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꽃으로 가득했고, 오랜 길을 날아온 새들이 쉬어갈 정도로 아름다웠던, 이름마저도 향기로운 섬, 난지도가 악취가 풍기고 오물이

넘쳐나는 쓰레기 산이 되었던 것은 역사가 만들어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3.2.2. 난지도 안정화 사업

난지도에 15년 동안 각종 폐기물이 비위생적으로 적재된 결과 쓰레기가 썩으면서 침출수, 악취,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주변 한강의 수질과 대기가 오염되었고 가까운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포화 상태로 쌓인 쓰레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환경을 복원하자는 틀 안에서 매립지가 지닌 환경오염 원인을 찾고 이를 처리함으로써 버려진 땅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적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준비작업 '안정화공사'가 시작되었다.9)

서울시에서는 매립지가 완전히 안정화되는 시한을 2020년으로 잡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연을 되찾으려는 안정화사업은 시민에게 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나아가 환경의 새천년을 상징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 (1) 침출수 처리

각종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된 침출수가 한강 및 난지천 주변으로 스며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지 주변 지하에 차수벽과 차수벽 안쪽에 집수정 31개소를 설치하여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모아 집수정펌프->침출수 이송관로->중계펌프장->침출수처리장의 과정을 거쳐 침출수처리장에서 하루 1,860m<sup>3</sup>씩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 다시 처리된 후 한강으로 방류한다.

#### (2) 상부복토

쓰레기 산 위에 흙을 덮는 상부 복토 공사는 매립지 내부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매립가스의 발산을 억제하며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3) 매립가스처리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상부와 비탈면에 120m 간격으로 가스를 모아서 뽑아낼 수 있는 포집정 106공을 설치하고 이송관로를 연결한 후 송풍기를 이용하여 가스를 뽑아내고 있다. 이 가스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여 난방열을 만들어 보일러를 가동하여 성산동 및 상암동 지역의 아파트와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업무용빌딩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 (4) 사면안정화

쓰레기 산의 경사진 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사

6) 택리지(擇里志) : 조선시대 1751년(영조 27)에 실학자 청담(靑澗) 이종환(1690~1756)이 저술한 지리서

7) 난지도 그 향기를 되찾다.(2006)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환경보전과. p.10

8) 조덕현(2005).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의 비교 연구 :생성과정과 이용현황 중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p.28

9) 난지도 그 향기를 되찾다.(2006)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환경보전과 p.28~34

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보호 공을 설치하였다. 난지도 사면의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나무를 심기에 적당한 땅으로 만들고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사면에 풀과 나무를 심는 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 3.2.3. 월드컵공원으로의 재탄생

1998년 10월 난지도 일원에 월드컵주경기장의 건설이 착수되면서 쓰레기 산으로 장기간 남게 되었을 지도 모를 난지도가 새천년과 2002년 월드컵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통해 월드컵공원이라는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환경의 시대인 새천년을 맞아 20세기 후반 우리나라의 급성장, 산업화, 도시화의 부작용,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파괴의 상징인 난지도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재생하고 복원하는 것은 서울의 도시관리정책 전환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기본계획 수립시 생태적 개념에 기초해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과 상호 유기적인 시설 구상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상호 공존 및 공생을 주된 개념으로 설정하고 자연과 인간문화의 공존, 환경보전과 인간이용의 공생적 관계 구축, 월드컵 주경기장, 난지도 매립지 등 인간구조물과 자연경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천년의 이념을 표현하였다.<sup>10)</sup>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앞 13만 5천평은 새천년 환경시대의 개막과 월드컵경기 개최를 기념하는 밀레니엄 파크로 만들고, 평화의 공원을 조성했다. 한강물을 평화의 공원내 난지연못에 끌어들이고 후 다시 난지천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친수환경과 수변 생태계를 복원하는 난지천공원, 매립지 상부를 초지생태공원인 하늘공원으로 조성하고, 노을공원은 대중생태골프장으로 조성하여 환경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 4. 월드컵공원의 에코페미니즘 경향

### 4.1. 가이아 원리로서의 자연과 여성

에코페미니즘에서의 자연은 모성의 원리에 기대고 있는 가이아에 그 정체성을 두고 있다. 고고학이나 문화인류학에서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대지의 신이나 대모신 같은 여신에게서 환경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sup>11)</sup>

‘가이아’라는 말은 지구나 대지를 뜻하는 그리스

어이고, 지구나 대지는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여성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지구를 ‘어머니 지구’로 불렀고 농경적 비옥도와 계절적 순환성을 지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삶을 유지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고안된 하나의 살아 있는 체계로 러브록에 따르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물질, 대기, 태양, 그리고 지표는 복잡한 한 체계를 구성하는데, 그 체계는 단 하나의 유기체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지구를 생명에 알맞은 장소로 유기시켜 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sup>12)</sup>라고 했다.

인간의 이기와 문명의 발달로 인한 자연파괴와 오염의 상징이었던 난지도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난지천 공원으로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모색하며 숲과 나무 그리고 자연으로 재생되었다.

### 4.1.1. 자연의 시작

‘하늘공원’은 하늘 가까운 초지(草地)공원으로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공사의 결과로 형성된 인공적인 척박한 땅에서 자연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다. ‘자연의 시작’을 의미하는 가이아 원리로서의 자연, 모성으로서의 자연, 치유, 재탄생의 에코페미니즘 경향을 보여준다.

15년간 쓰레기매립으로 형성된 난지매립지는 자연천이가 진행되는 생태적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인공지반으로, 일반적인 생태공원의 주제인 완성되고 점차 성숙되어 가는 생태공간의 표출이 아닌, 새로운 자연의 시작, 치유되는 자연, 새로운 공간의 탄생 등 과거의 얘기가 축약된 경관 알레고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악조건의 환경이 자연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며 높은 키 초지 북쪽에는 억새와 띠를 심어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하늘공원의 억새밭은 대가 가늘고 부드러운 키가 작은 여성이미지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갈대는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건조하고 척박한 산에서 자라며 강한 바람에 휘어질망정 결코 꺾이지 않는 억새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생활사를 그대로 닮은 여성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림2).



[그림 2]하늘공원(왼쪽), 노을조각공원(오른쪽)

10)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 건설지(2003) p.83~85

11) 김옥동(1997).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적 기초. 영미문학 페미니즘(4). p.42

12) Lovelock, James E(1979). 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Oxford: Oxford UP. p.1

또 다른 매립지에 조성된 '노을공원'은 총 면적의 57%정도는 골프장으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나 2008년 11월 1일 공원으로 개장하였다. 바람의 광장과 노을 광장은 서울의 아름다운 해질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생태관찰공원과 야생화단지는 토지의 안정성을 높여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2009~2010년에는 쓰레기매립지가 환경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한 의미를 담아 노을카페, 공연장, 전망데크, 조각품 등을 도입해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09년 7월 26일 '재생 : 인간과 자연의 재발견' (그림2)이라는 주제로 조각 작품 10점을 설치하면서 노을조각공원이 개장했다.<sup>13)</sup>

#### 4.1.2. 생태계의 회복

쓰레기침출수가 흐르던 난지천의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회복시켜 자연하천 생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 3] 난지천공원

공원으로 특화 시킨 것이 '난지천공원'이다. 난지도 북단을 감돌아 한강으로 흐르는 난지천에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쓰레기 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고 하천 또한 깊은 도랑 형태로만 남아 장마철이 아니면 거의 말라있는 상태였다.

이에 죽은 난지천에 질 좋은 흙과 모래를 덮고 평화의 공원에 조성된 난지연못에서 하루 3,000톤 가량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낸다. 하천가에는 갈대가 우거지고 버드나무와 각종 식물들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 3과 같이 생태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에는 메타세콰이어, 소나무 등 키 큰 나무 2천여 그루, 키 작은 나무 5만 여 그루를 심어 푸른 숲을 가까이 끌어왔다.<sup>14)</sup>

#### 4.1.3. 숲과 나무

월드컵공원에는 산림욕장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숲이 있다. 900여 미터의 시원하게 뻗은 산책로와 하늘높이 솟은 메타세콰이어 나무, 그리고 하늘공원 사면의 울창한 녹음이 어우러져 월드컵공원의 명소

로 사랑받고 있는 곳으로 하늘공원 계단에서 난지순환길을 따라 걸어가면 비포장도로가 시작되는 곳부터 메타세콰이어 나무 숲길이 시작된다 (그림4).



[그림 4] 메타세콰이어 숲길

숲은 갖가지 생물, 미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환경으로 인도 문명에서 여신으로 숭배되어 왔다. 이 여신은 생명과 다산성의 주요 근원이었으며 공동체로서의 숲은 사회적, 문명적 진화의 모델로 간주되었고 지구의 풍요로움과 생산성에 대한 최상의 표현으로써 숲은 대지의 어머니인 것이다.

숲이 대지의 어머니라면 나무는 또 하나의 여신이다. 나무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 뿌리를 내리며 모성과 풍요, 희망,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 가령 문명에 의해 파괴된 숲에 나무를 심는다면, 나무는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영혼으로 숲을 치유하는 것이다.<sup>15)</sup>

### 4.2.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균형과 조화

에코페미니즘은 근본생태론과 급진적 여성해방론이 결합되던 초기의 여성과 자연이 동일하다는 생물주의적이고 본질주의적인 경향<sup>16)</sup>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연과 여성이 아닌 자연과 인간과의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연과 인간이 상호 공존 및 공생하는 생태학적 균형과 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과 인간을 재발견해내는 운동이며, 인간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을 재발견해내는 운동이다.

평화의 공원, 이곳은 통일과 한민족 도약의 시대가 될 새 천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 4.2.1. 상호 공존 및 공생-평화의 공원

'평화의 공원'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공존 및 공생하는 대표적인 에코페미니즘의 개념을 담고 있는 곳이다. 통일과 한민족 도약의 시대가 될 희망의 새 천년을 기념하는 장소로 월드컵공원을 대표하는 공

13) 한겨레신문. 삼암동 조각공원 개장(2009.7.26)

14) 난지도 그 향기를 되찾다.(2006)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환경보전과. p.49

15) 진은경(2006).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한국비교문화학회. 비교문학. p.148

16) 문순홍(1995). 에코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6). p.319

간이며 공원 주제인 '평화'는 월드컵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기도 한 '상호 공존 및 공생'을 뜻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 문화의 상생, 세계 적대 세력과의 화합, 기념비적 스케일의 거대 공간과 인근 주민이 체험하는 일상적인 공원의 조화 등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균형과 조화의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

또한 인공구조물과 자연경관의 공존은 월드컵 경기장등 거대 구조물의 압도감을 완화하고 인공요소와 자연요소의 대비와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상생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세계 적대세력의 화합과 공존, 전쟁, 민족분단, 억압세력 등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하는 평화의 이미지를 표출한다.

즉 인간에 의해 훼손된 자연을 치유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한다.

#### 4.2.2. 환경교육 및 휴식

평화의 공원은 21세기 최초로 개최된 월드컵 경기를 기념하고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며 지역주민들의 환경교육 및 휴식과 운동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림 5] 난지연못

한강 물을 끌어와 만든 '난지연못'(그림5)은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도록 꾸며져 있고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부들, 아기연꽃, 수련, 속새, 꽃창포 등이 심겨진 연못에서 내보내는 물을 난지천으로 흘러보내 맑은 물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활용한다.

'평화의 정원'에는 그림 6과 같이 지면의 높낮이를 이용하는 대지예술을 포함하여 화합과 공존의 평화 이미지를 표현하는 꽃밭을 조성했다. 평화의 공원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질서를 상징하는 직선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사선을 이용한 땅을 재료로 한 조형예술을 표현한 곳으로 희망과 신비로움이 내재된 평화스러운 정원의 표현이다.



[그림 6] 평화의 정원과 피크닉장

'평화의 정원 피크닉장'은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숲으로,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푸르게 만든다는 목표 아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1999년과 2000년 봄에 나무를 심었다. 난지연못과 월드컵경기장을 배경으로 버드나무 등이 수변식물들과 잘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보이며, 느티나무 등이 시원한 그늘을 만든다 (그림6).



[그림 7] 디자인서울갤러리

'월드컵공원 디자인서울갤러리'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던 과거의 난지도, 산업화로 인해 쓰레기로 뒤덮여 병들어간 난지도, 안정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공원화 된 후 생태계가 재생된 난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쓰레기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연 상태에서 쓰레기 분해에 필요한 기간과 재활용품, 폐품을 이용한 환경설치물 등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교육과 반성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sup>17)</sup> 그림 7은 디자인서울갤러리의 다양한 모습이다.

#### 4.3. 에코토피아를 향하여

에코토피아는 생태주의를 뜻하는 그리스어 'Ecological'과 이상향을 뜻하는 'Utopia'의 합성어로 '생태적 이상향'을 의미한다. 1975년 미국의 어니스트 칼렌버그(Ernest Callenbach)가 '에코토피아'에서 이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sup>18)</sup>

이는 사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과학기술 문명에서 벗어나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자 빈부, 인종, 연령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계이다. 풀과 나무, 모든 동물이 평등한 것처럼 인종, 국경, 성별, 그 어느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고 다시 자연에게 베풀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에코토피아가 추구하는 참모습이다.

17)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 서부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전과 <http://worldcuppark.seoul.go.kr/>

18) Callenbach, Ernest.(1991) 에코토피아. 정신세계사

난초와 지초가 풍요롭게 자라던 아름다운 섬, 난지도는 급격한 서울의 거대도시화 과정에서 1978년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15년간 건설폐자재, 생활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더미로 90여 미터 높이로 두 개의 산이 되었다. 2002월드컵을 앞두고 조속한 주변환경정비가 필요했던 서울시는 월드컵과 새천년을 기념해 난지도의 변신을 꾀한다.

그 결과, 자연파괴와 오염의 상징이었던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재생된 유토피어로 거듭난다.

#### 4.3.1. 역사축제의 향연

감성과 예술, 체험이 공존하는 활기찬 공원에는 가을의 역사축제가 매년 성황리에 열리고 있고, 음악회, 가족극장, 야외스케이트장 등 문화예술행사가 끊임없이 유치되는 등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에코토피아의 세계로 재현되고 있다.



[그림 8] 하늘공원 역사축제

역새꽃이 만발한 10월,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색깔의 조명으로 물든 역새밭과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역새축제’를 개최한다.<sup>19)</sup>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야간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하늘공원을 야간개장 하여 삶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은빛 역새물결 사이를 거닐며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 역사축제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연령·성별·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가능한 부대행사를 통해 오감으로 느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역동적인 서울의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4.3.2. 이상향으로서의 광장

세속에 찌든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은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이다. 첨단물질 문명에 둘러싸여 풍요롭게 살고 있는 현대에 이런 삶의 방식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으나 자연과 동화되어 풍류를 즐기는 삶은 주위의 공원이나 숲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숲의 주인이 되고, 일부가 되어, 함께 호흡하고 느끼다 보면 물질

19) 2009년 주요업무계획.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과 자연의 경계를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월드컵 공원은 현대인들이 자연과 동화되어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장소로서의 광장을 제공한다. 광장은 넓은 우주나 자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구성 요소로 활용된다.



[그림 9] 유니세프광장, 난지잔디광장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지어진 ‘유니세프 광장’은 월드컵 경기기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9).

‘별자리 광장’은 바닥에 별자리(천상열차분야지도)를 표현해 별자리 광장으로 불린다. 바닥분수가 설치되고 분수 주변에는 회화나무 그늘아래 평상을 설치하여 분수와 나무와 가족이 하나가 되는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평화잔디광장’은 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푸른 자연과 어울려 맘껏 뛰어놀며 자연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법을 배운다. 주변 산책로를 따라 하늘공원 역사와 연관된 테마가든이 조성되고 여러 가지 꽃과 잎이 어우러져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난지잔디광장’은 학생들의 사생대회 등과 가족단위 놀이공간, 인근 지역 직장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잔디광장 주변의 단풍나무와 느티나무 등이 광장과 잘 어우러져 있다 (그림9).

‘평화광장’은 연간 약 50여회의 다양한 문화체육행사가 열리는 월드컵공원의 대표적인 광장으로 접근성이 편리해 사람들이 자연과 동화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장소로 각광받고 있다.<sup>20)</sup>

20)

### 4.3.3. 월드컵공원의 에코토피아

월드컵공원의 에코토피아는 생태적 이상향을 위해 자연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함께 즐기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자연과 화합하여 살아가는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의 모태인 자연으로 인간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인간은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으며 영속할 수 있다. 에코토피아의 현실적 문제점은 인간의 문명이 자연으로 되돌아가기에 힘든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깊은 산의 나무와 숲, 물과 계곡이 재현된 월드컵공원은 자연이라 말할 수 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공원은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며 자연의 품을 제공해줄 수 있다. 우주의 섭리를 압축하여 놓은 공원을 통해서 자연, 순수 세계, 이상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캐롤린 머천트(Carolyn Merchant)는 '자연의 죽음'에서 도시에 찌든 생활을 벗어나 목가적인 시골로 도피하는 것은 어머니의 포근하고 넉넉한 품 속으로 돌아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자연의 어머니 품 속에서 피로에 지친 도회인들은 휴식을 취하고 위로(21)를 받고 이상향의 세계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에코토피아가 제시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 5. 결론

자연과 여성만이 아닌 자연과 인간과의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연과 인간의 생태학적 균형과 조화에 초점을 맞추는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과 인간을 재발견해내는 운동이며, 인간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을 재발견해내는 운동이다.

꽃과 풀이 아름다운 섬에서 15년간 쓰레기 산으로 자연 파괴와 오염의 상징이었던 쓰레기 매립장 남지도가 도시재생디자인을 통해 환경생태공원으로 재생되는 과정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적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 경향은 인간과 자연이 화해를 모색한다는 것으로 자연과 여성성의 조화로운 세계를 위한 회복, 가이아 원리로서의 치유의 개념,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인 균형과 조화, 에코토피아를 향한 힘찬 발걸음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앞에 닥친 생태학적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과 자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질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이 상호 공존 및 공생하는 생태학적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연과 환경에 대한 배려로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균형을 확립해야 하며,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적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보희(2003). 서구 에코페미니즘과 임윤지당의 철학사상 비교. 한국비교문화학회(31).
- 김옥동(1997).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적 기초. 영미문학 페미니즘(4)
- 문순홍(1995). 에코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6).
- 장정렬(2001). 생태페미니즘 시의 현재와 미래. 초록생명의 길 2. 시와 사람.
- 조덕현(2005).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의 비교 연구 : 생성과정과 이용현황 중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은경(2006).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한국비교문화학회. 비교문학.
- 난지도 그 향기를 되찾다(2006).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환경보전과
- 서울디자인자산 51선 선정으로 서울의 디자인 가치 재발견(2009.7.5).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보도자료
- 월드컵공원 건설지(2003).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 서부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전과 <http://worldcuppark.seoul.go.kr/>
- 2009년 주요업무계획.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 상암동 조각공원 개장(2009.7.26). 한겨레신문.
- Arne, Naess.(1973)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Inquiry16.
- Carolyn Merchant.(1980)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ew York.
- Callenbach, Ernest.(1991) 에코토피아. 정신세계사
- Francoise d'Eaubonne.(1984) Le feminisme ou la mort. Pierre Horay.
- Lovelock, James E.(1979) 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Oxford: Oxford UP.
- King, Ynesta.(1981) Feminism and the Revolt of Nature. Heresies(13)

20)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 서부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전과 <http://worldcuppark.seoul.go.kr/>

21) Carolyn Merchant(1980).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ew York. p.7